

“대중교통 이용시 걷거나자전거타면 최대 3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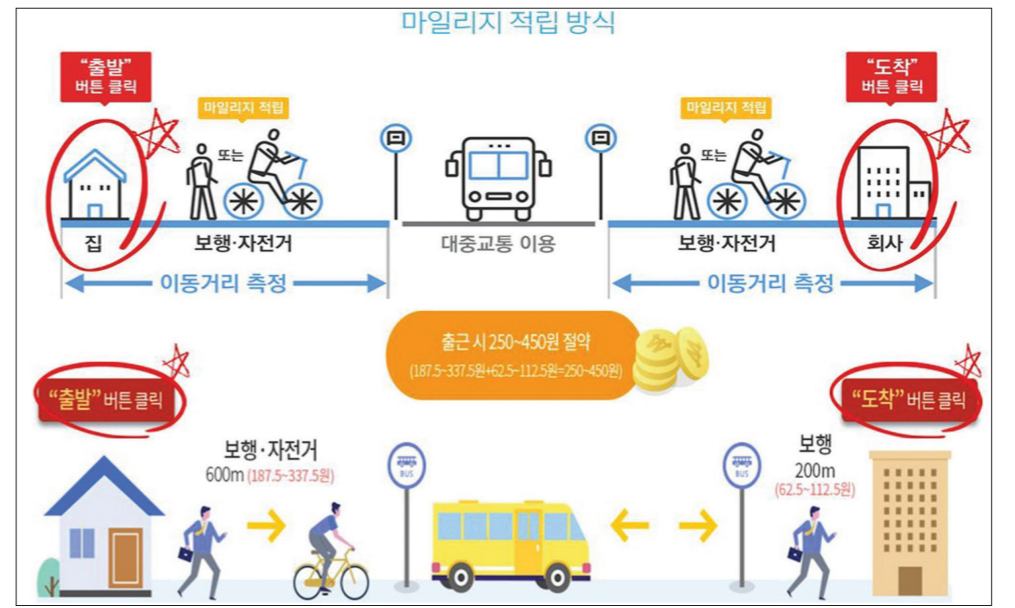
광주시, 알뜰교통카드 사업 지난해 지역서 6131명 가입 2020년 도입 2년만에 75% ↑

광주시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버스나 지하철 교통비가 할인되는 알뜰교통카드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알뜰교통카드는 도보나 자전거를 연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교통비 할인 혜택을 주기 위해 2020년부터 도입했다. 버스나 지하철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교통비의 20%까지 월 최대 1만1000원의 마일리지가 지급된다.

카드사 별로 추가 제공하는 10% 할인혜택을 포함할 경우 최대 30%까지 대중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 광주지역 알뜰교통카드 가입자는 6131명으로, 2020년에 비해 75% 늘었다. 월 평균 이용횟수는 35.5회(전국 38.9회), 월 평균 절감액은 1만2184원(전국 1만4172원)이다. 한편 알뜰교통카드는 광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카드 사용과 마일리지 적립은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다. 희망자는 우선 알뜰교통카드(신한, 우리, 하나카드)를 발급받고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 월 15회 이상 알뜰교통카드와 알뜰교통카드 앱을 동시에 사용해야 하며, 마일리지는 월

44회 한도로 지급된다. 집에서 출발할 때 앱에서 ‘출발’ 버튼을 눌러 이용등록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면 앱에서 ‘도착’ 버튼을 눌러 이용실적을 등록하면 마일리지 적립된다. 알뜰교통카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카드발급 신청 사이트인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황인채 시 대중교통과장은 14일 “지난해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알뜰교통카드에 가입하기 시작해 이용자가 대폭 늘어났다”며 “대중교통비를 할인받고, 건강과 환경도 지킬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를 많이 이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제17회 전라남도 수출상 시상

일시 2022. 3. 14.(월) 10:50 장소 전라남도 VIP실

전남도 수출상 시상식 전남도는 14일 제17회 전남도 수출상 시상식을 열어 자동차 설비 2천600만 달러를 수출한 (주)제일(대표 윤홍현) 등 수출확대로 지역경제와 수출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을 격려했다. 시상식에서는 (주)제일이 대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해양교량박스 1천900만 달러를 수출한 영창중공업(주)(대표 박길식)과 알로에유로 700만 달러를 수출한 (주)에이엔티앤지(대표 김경남)가 우수상을 탔다.

전남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528억 역대 최대 조기폐차 등 2만6천177대...승용차 폐차 후 무공해차 구매시 추가 지원

전남도는 도민의 건강권 확보와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대기질 관리를 위해 올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만 6천177대의 조기 폐차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시행했다. 국비와 지방비 528억 원을 투입하는 올해 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로, 승용 분야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주요 지원 내용은 조기폐차 2만 2천233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2천250대, LPG 화물차 신차 구입 1천246대 등 6개 사업이다. 조기폐차 대상은 관할 시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등이며, 자세

한 신청 방법 및 서류 등은 시군 누리집의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3.5톤 미만의 경우 최대 300만 원(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차량, 영업용차량 등은 최대 600만 원), 3.5톤 이상의 경우 최대 440만~3천만 원, 덤프트럭 등 3종은 최대 4천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승용차량(5인승 이하) 폐차 후,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광주시장 “대형 복합쇼핑몰 2곳과 접촉 중”

대선 후 첫 출입자 차담회서 밝혀...“편시티 조성 차원”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대형 복합쇼핑몰 문제와 관련, 광주시가 최근 복수의 업체를 상대로 복합쇼핑몰 유치를 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대선 이슈였던 복합쇼핑몰에 대해 “실제 2개 업체와 접촉했고, 해당 업체들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입지 또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광주형 대형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위치와 유형, 건립 시기 등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치쟁점화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이 시장은 “지금 이 문제가 뜨겁게 달아오르면 선거용으로 전략해 자칫 정치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새정부가 들어서면 곧바로 추진할 수 있도

록 내부적으로는 착실하고 확실하게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부서에서 업체 측의 책임있는 분들과 접촉했고, 기업 유치 측면에서 진행중인 사안으로, 올해 시정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 편 시티, 광주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임지로는 상업시설 면적과 부지가격, 접근성 등을 감안할 때 어등산관광단지과 광주와 전남 접경지역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출입기자 차담회에서 창고형 복합쇼핑몰과 관련해 “차량이용자가 주로 이용하고, 도심 한복판에서 벗어난 한적한 곳, 전통신장 등 소상공인과의 상생 등을 고려할 때 도심 한복판보다는 어등산 같은 곳이 나올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남진기자

광주인쇄산업, 작년 매출 1133억...전년 대비 12% ↑

광주지역 인쇄산업체 지난해 매출이 1133억 원에 이르는 등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디자인·ICT 융합 인쇄산업 혁신성장시스템 구축사업’ 참여기업은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성과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과 고용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매출은 2020년 1008억원에 비해 12% 증가한 11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망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스티커·라벨인쇄 전문기업의 경우 2020년 29억9000

만원에서 지난해 48억원으로 60%의 매출 성장세를 기록했다. 잠상 인쇄기술 상용화에 성공한 업체는 지역화해 등 인쇄물량이 증가하면서 큰 폭의 매출 성장세를 보였다. 스크린인쇄 전문기업은 2021년도 매출 600억원을 달성해 지난 2020년 대비 15% 성장했다. 경인쇄기업은 2020년 8억여 원에서 11억 원으로 35%, 인쇄상품 전문기업도 5억1000만 원에서 7억1000만 원으로 16%씩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선욱기자

한정승인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2022 년 단 3208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이성현 (471029-1559817)
최 후 주 소 : 광주 광산구 선운로2번길 41-3 (선암동)

위 망 이성현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2년 3월 15일

공 고 인 : 이강현, 이상진, 이창무
주 소 : 경기 양평군 지평면 역말4길 58
한정승인수리일 : 2022년 3월 8일
공 고 기 간 : 2022. 3. 15 ~ 2022. 5. 15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므로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연도	보험료 (월평균)	보험금 (월평균)	비율
2016년	240,833원	266,977원	1.1배
2017년	125,531원	147,147원	1.17배
2018년	78,147원	104,062원	1.33배
2019년	48,103원	84,062원	1.74배
2020년	26,697원	47,147원	1.77배

www.nhis.or.kr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하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기를 실수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해관계사 실현을 돕습니다.